

2019년 상반기 (주)서울프린스호텔 협력, 문학창작집필실(소설가의 방) 사업 입주작가 선정심사 총평

- 심사위원 : 강영숙, 주원규, 김성중, 윤고은
- 심사안건 : 2019년 상반기 (주)서울프린스호텔 협력, 문학창작집필실(소설가의 방) 사업 입주작가 선정

<소설가의 방> 레지던스는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자기만의 공간이 절실한 젊은 작가에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등단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등단 10년이 넘은 신청자가 상당수여서 심사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지원자들은 한 번 더 유의하고 문을 두드렸으면 한다.

소설 외에 동화나 에세이 등 다른 산문 장르에도 문을 열어두었고, 그간 보여준 문학적 성취와 앞으로의 집필 계획을 면밀하게 따져 심사에 임했다. 그 결과 흥미롭고 지적인 질문으로 가득한 SF를 쓰는 김초엽 작가, 굵고 힘 있는 장편서사를 보여준 박서련 작가, 따뜻하고 우아한 관념성이 돋보이는 이민진 작가, 단단한 세공력을 밀어붙이는 전민식 작가, 등단작에서부터 자기만의 인장을 또렷하게 보여준 김지연 작가, 투박하면서도 생생한 묘사가 돋보이는 임성용 작가, 이렇게 여섯 분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선정 작가들은 현재 몰두한 작품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 또한 구체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보니 소재나 스타일이 제각각인지라 이분들이 <소설가의 방>에서 차례로 만들어 나갈 여섯 개의 쿼트가 기대된다.